

“전남 청정 수산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단 응원합니다”

동계올림픽 앞두고 선수단에 영양식 제공 진천선수촌서 수산물·특산품 우수성 홍보

전남도는 1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제25회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전남 청정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와 수협중앙회, 대한체육회,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선수단 격려와 함께 전남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동참했다.

행사에서는 전복·굴비·장어·민어·굴·문어 등 전남을 대표하는 고품질 수산물을 활용한 특식 500인분이 제공됐다. 단 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수산물 중심의 식단은 체력 증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메뉴로 구성돼 선수단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전남 수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남 수산물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국가대표 식단에도 오를 만큼 품질이 우수하다. 앞으로도 청정 전남 수산물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국회 판촉행사와 수도권 직거래장터를 비롯해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도 지자체·기업·학교 등과 연계한 홍보·판매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을 활용한 특식 500인분이 제공됐다. 단 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수산물 중심의 식단은 체력 증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메뉴로 구성돼 선수단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과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 김택수 선수촌장 등은 직접 배식에 참여해 선수단을 격려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전남의 대표 수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홍보 부스도 운영됐다.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직접 전남 수산물을 체험하고 구매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전남 수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남 수산물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국가대표 식단에도 오를 만큼 품질이 우수하다. 앞으로도 청정 전남 수산물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국회 판촉행사와 수도권 직거래장터를 비롯해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도 지자체·기업·학교 등과 연계한 홍보·판매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는 1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제25회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전남 청정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열었다.

김삼진 KT전남전북본부 ESG담당 부장, 광주시장 표창 수상

취약계층 지원·기부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기여

“작은 손길 필요한 곳 지원…지역사회와 함께 동행”

김삼진 KT전남전북광역본부 ESG업무 담당 부장이 올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광역시 표창패를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열린 ‘지방스러운 광주시민 시정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진행됐으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표창패를 전달했다.

김삼진 부장은 KT ESG업무를 담당하면서 올해 광주지역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왔다.

KT는 올해 시각장애인복지관 선물세트(500만원) 전달을 비롯해 농아인협회에 쌀(1500kg)과 송편 지원, 시각장애인에게 한우와 배 등 명절선물 전달, 시각장

애인복지관에 업무용 차량을 기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 수해 피해가 컸던 광산구 도곡동 일대에서 ‘KT 사랑의 밥차’를 투입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식사 제공과 구호물품 지원했으며, 임직원 ‘걸음기부 챌린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침수방지 차수막 250개를 기부했다.

이와 함께 광주 고려인마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딩캠프를 진행했으며, 광주보훈청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1일 봄나들이’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삼진 KT전남전북광역본부 ESG담당 부장은 “지역사회 작은 손길이 필요한 곳



김삼진 KT전남전북광역본부 ESG업무담당 부장(가운데)이 최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지방스러운 광주시민 시정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표창패를 수상했다.

을 찾아 물품 지원과 기부활동으로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

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변우진 태그플러스 대표, 전남사랑의열매 기부

“이웃들과 온정 나누는 활동 이어가겠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일 변우진 태그플러스 대표가 지역 내 돌봄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성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변우진 대표, 직원 관계자와 김동국 전남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변 대표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희망 2025나눔캠페인’ 기간에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변 대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계속 이



TAGPLUS(태그플러스) 이웃사랑 성금 전달 5,000,000원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2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1층 MVG라운지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신문윤리강령 준수…독자 시각에서 기사 작성을”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편집·광고·판매 강령교육 실시

이승배 부사장·편집인 “지역밀착형 콘텐츠 전달” 당부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2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1층 MVG라운지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실무교육은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편집인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취재기자나 편집기자는 상호 소통을 통한 독창적 제목 뽑기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취재기자는 취재 부장과 의견을 조율하고, 독자의 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종교 등 외부로부터 독립을 강조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주 주시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정 광고 단가를 준수하고, 진실성, 신뢰성,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가구독자 유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 부사장은 정가구독자 관리를 위해서 는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를 비롯해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과 구독료 원천 준수 등을 주문했다.

이 부사장은 “언론인은 사회적 정의의 실

천을 위해 신문윤리강령 준수와 도덕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밀착형 콘텐츠를 독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갑돌과 분열의 현장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임직원 모두 혁신을 통해 선도적 언론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 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광주과학관, 필 사이언스 강연 22일 권이균 연구원 원장 초청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본관 상강홀에서 ‘제40회 필 사이언스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권이균 원장(사진)을 초청해 ‘미래를 바꾸는 기후 히어로-탄소를 줄이고 지구를 지켜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 가뭄 등 전 지구적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의 심각성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과학적 노력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강연은 어린이들도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설명으로 진행되며, 강연 후 질의응답 및 자유 토의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과학문화실 김정원 연구원은 “이번 강연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학의 힘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 온라인 예약을 통해 선착순 150명 한정으로 사전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신승호·김은영 부부(고흥군 동강면), 염남호·최경심 부부(보성군 문덕면), 김천구·교윤경 부부(장성군 삼계면)를 선정했다.

농협 전남본부, ‘이달의 새농민상’ 3부부 선정

고흥 신승호·김은영 부부

보성 염남호·최경심 부부

장성 김천구·교윤경 부부

농협 전남본부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신승호·김은영 부부(고흥군 동강면), 염남호·최경심 부부(보성군 문덕면), 김천구·교윤경 부부(장성군 삼계면)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농협중앙회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바탕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선도 농업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신승호·김은영 부부(은세미로)는 25년 가까이 농업에 종사하며 수도작과 시설하우스(딸기)를 경영하고 있다.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해 병해충 관리와 생육 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절하며 고품질 딸기 생산 기반을 구축했고, 재배 기술을 주변 농가에 공유해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동강면 농업단체 활동과 라이온스클럽

동강지역 회장 활동 등 지역사회 신뢰를 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염남호·최경심 부부(해성농장)는 벼농사를 시작으로 전업농에 뛰어들어 현재 한우 60두 사육과 단호박·고추·매실 재배 등 복합 영농을 실천하고 있다. 마을 이장과 영농회장을 10년 동안 맡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과 조정 역할을 해왔고, 청년회·방방대·의용소방대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화합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김천구·교윤경 부부(농심농원)는 2004년부터 영농에 종사하며 2015년부터 양파·논콩·감자 등으로 복합 영농 기반을 구축했다. 도시락 배달 봉사, 일손 돕기, 수해복구 등 꾸준한 사회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진 영농기술 보급과 후계농업인 육성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